

사우디 원전수주 위해 美·UAE와 맞손

산업부·한전, 원전사업 수출 논의 하반기 사우디서 원전홍보 로드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아랍에미리트(UAE)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한국전력 등 원자력 업체는 하반기 사우디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로드쇼를 개최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철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전날 개최한 원전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사우디 원전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주전에 뛰어들 5개국 모두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 간 합종연횡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미국과 정부 간 협력을 협의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 원전 업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4개 경쟁국 중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에 원전을 지으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UAE 바라카 원전 수주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하는 등 오랜 협력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쌓은 신뢰를 토대로 UAE와도 사우디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3월 UAE 원자력공사(ENEC)와 공동 설립한 '바라카 원 컴퍼니'와 중동을 포함한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

출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원전 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우디의 경제개혁으로 사우디는 한국을 롤모델 삼아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산업부는 조선,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보건·의료 등 위원회에서 선정한 5대 분야별 40개 협력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동차와 제약 등 사우디가 최근 관심을 보인 분야의 신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담맘에서 원전 설계, 제작, 시공 등에 참여하는 국내 30여개 업체와 함께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우디 측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원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오늘 한-우즈벡 농업포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덕계이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함께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확대, 농축산업 기반구축, 보건·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에서 양국은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식물검역 체계 현대화 방안,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정책에 대한 논의 등을 바탕으로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국제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연 1000팀... 지정대학 20개로 확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창업지원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청년취업 인건비 2년간 2400만원

정부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은 2곳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를 기존 창업단계까지에서 자생적 성장까지 넓혀 창업지원기간을 연장(1년→최대2년)하고, 자금·공간·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

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지역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사회적기업 50곳 신규 인증

정부인증 기업 총 1978곳

정부가 사회적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1978곳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제주여행, 곤충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운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두리함께 주식회사는 '세상의 모든 여행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무장애 여행(접근가능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 '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애 VR TOUR 콘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연평균 3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숲속

의 작은친구들은 곤충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생태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진 곤충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곤충 서식지 설치' 사업을 진행해 곤충생태 복원과 함께 자원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베네핏은 미디어·출판·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정숙 여사, 윤아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가수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윤아'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윤아'씨는 2010년부터 나눔을 실천, 2015년 아이들 중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터 회원에 가입해 현재까지 3억여 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생산성본부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제기된 업종별 건의사항을 살펴

보면, 섬유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선·철강·기계업종 등은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토부·코레일·SR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올 추석부터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오전 6시부터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26일까지 6일 간이다. 코레일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일(잠정)은 8월 28~29일, SR은 9월 4~5일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